



# EU,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본드 시험 발행 합의

이정환 선임연구원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본드(PB)를 시험적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함.

- 유럽 재정위기로 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어렵게 되자 EU는 산하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금을 늘리고, 이를 지렛대 삼아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하여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전략을 세움.
  - EU 재무장관들은 7월 10일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향후 2년 동안 45억 유로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유럽집행위원회(EC) 계획을 승인함.
  - EC는 이를 위해 2012~13 회계연도 예산 중 2억 3,000만 유로<sup>1)</sup>를 시험적인 프로젝트본드<sup>2)</sup> 발행 사업을 위해 투입하기로 함.

■ 금번 프로젝트본드 시험발행은 2012년 5월에 합의한 성장협약을 구체화한 것이며, 향후 유로본드 도입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5월 EU 정상들은 비공식 특별 정상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1,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성장협약을 합의한 바 있음.
- 프로젝트본드는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개념에서 유로본드의 시험 단계적 성격을 가짐.

■ EU는 프로젝트본드 시험 발행의 성과가 좋으면 2014~20년엔 '유럽연결기금(ECF)'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성공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1) 수송·교통 부문에 2억 유로, 정보통신과 에너지 분야에 각각 2,000만 유로와 1,000만 유로를 배정.  
 2) EU의 프로젝트본드는 특정 사업의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민간 채권이며, 자금 조달의 난이도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 두 가지로 분류됨. EC가 배정한 자금은 민간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IB가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됨.

- 전문가들은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시험 발행 계획에 대해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함.
- 반면, EIB는 이미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낙관함.

(Bloomberg, 7/11)